

태국의 국가-시민사회 관계와 민주화과정 :

1973년과 1992년의 민주화과정 비교

이동윤*

I. 문제 제기

II. 이론적 논의 : 국가-시민사회 관계와 민주화

III. 태국의 국가-시민사회 관계와 민주화과정의 전개

IV. 태국의 1973년과 1992년 민주화과정 비교

V. 맺음말

I. 문제 제기

과거 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서 수행되어 온 “아시아 양식의 민주주의(Asian style democracy)”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체제이기보다는 준권위주의(semi-authoritarianism) 혹은 준민주주의(semi-democracy)에 가까운 정치체제를 수행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Neher 1994, 949). 이들 국가들에서는 법·제도적 차원에서 외양적으로 자유·경쟁선거를 실시하거나 일반 시민들의 사적 자유와 참정권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나 야당의 정치활동을 억압하고 배제함으로써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의 요소들을 함께 배태하여 왔다.

* 연세대 강사

그러나 “민주주의의 제3물결(the third wave of democracy)”¹⁾이라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점진적으로 커다란 정치변동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과거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를 수립하거나 준민주주의체제를 형성하여 왔던 국가들에서 장기간 지속되었던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적 정권들은 일반 국민들의 강력한 민주화 요구에 기인하여 정권 교체 및 체제 붕괴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민주주의로의 새로운 체제전환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태국은 지난 1932년 일부 소장파 군부와 관료세력들에 의해 발생한 궁정쿠데타로 국왕을 중심으로 한 입헌군주제를 채택한 이래 오랜 기간동안 크고 작은 정치변동을 거치면서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과정을 겪게 되었다. 그 동안 태국은 1944년부터 1947년 사이 수립된 짧은 민간정부 시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군사정권의 지배를 받아 왔으며, 1973년부터 1976년 사이 진행된 제1차 민주화과정에서도 민간세력 중심의 안정적인 민주주의체제를 수립하지 못한 채 또 다른 군사쿠데타가 발생함으로써 민주주의 구현의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태국에서는 서로 경쟁적인 군부세력들에 의한 군사쿠데타만이 정권 교체의 유일한 방법이 되었으며, 쿠데타로부터 쿠데타로 이어지는 태국 정치의 이러한 특징은 ‘태국정치의 악순환’(vicious cycle of Thai politics)이라 명명되기도 하였다(Samudananija 1981, 1). 그러나 태국 국민들은 과거 단기적으로 축적된 민주정치의 경험과 1980년대 브렘(Prem Tinsulanonda) 정권에 의해 주도된 준민주주의체제 시기를 거치면서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활성화됨으로써 1991년 쑤찐다(Suchinda Kraprayoon) 장군이 주도한 군사쿠데타와 군부의 집권 야욕을 저지하고 마침내 1992년 9월 실시된 의회선거를 통하여 민주화에 성공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태국에서 발생한 지난 1973년의 제1차 민주화과정과 1992년의 제2차 민주화과정은 어떤 요인들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그

1) 헌팅톤(Huntington 1991)은 1974년의 포르투갈 민주화를 기점으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민주화의 흐름을 “민주주의의 제3물결”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성공과 실패 여부는 어떻게 비교하여 평가될 수 있는가? 태국이 지난 제1차 민주화과정에서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며, 이후 제2차 민주화과정에서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가?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 과정을 연구한 기존의 많은 학자들은 민주화과정이 진행되고 성공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제반 요인들을 강조하여 왔다. 일부 학자들은 민주정치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정치문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Huntington 1991, 61-3; Seligson 1987, 8; Pye 1965, 3-26), 또 다른 학자들은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을 결정짓는 정치엘리트들의 리더십과 민주화과정에 직·간접적 도움을 주는 외부적 환경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O'Donnell et al, 1986b, 19; Koppel 1993, 8). 그러나 이들 논의들은 일면 민주화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과 변수들을 제공하면서도 지나친 서구 중심적 사고와 한 가지 요인에 과도하게 집착한 단선적인 설명으로 인하여 그 이례적인 사례들에 대한 지적과 함께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이동윤 2000, 193-4; 서경교 2000, 24-8). 즉, “모든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정치적 요인들이 언제나 인과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Rustow 1970, 346)”라는 주장과 함께 민주화과정의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들 각각의 요인들은 경우에 따라 서로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며,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 또한 보다 복잡하고 중층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에 성공한 개별 국가들의 민주화과정에서 나타나는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 특히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하려는 국가에 대항하여 민주화과정을 주도하게 되는 시민사회의 역량에 주목하게 된다. 민주화에 성공한 다양한 국가들 사이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은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강화되고 이들에 의한 민주화운동이 활성화될수록 민주화과정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권위주의체제의 독점적 권력을 지속적으로 향유하고 유지하려는 집권세력으로서의 국가와 이에 대항하여 정치권력의 분할과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는 개별 국가들의 민주화과정 속에서 정치행위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역동적인 정치변동의 흐름을 보다 일반화하여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태국에서 발생한 두 차례에 걸친 민주화과정을 국가-시민사회 관계에 입각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태국 민주화과정의 성패와 그 역동적인 변화 양상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태국이 경험한 지난 1973년의 제1차 민주화과정과 1992년의 제2차 민주화과정을 국가-시민사회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방법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민주화과정을 둘러싼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어떠한 요인들이 두 시기 민주화과정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결정짓게 되었는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II. 이론적 논의: 국가-시민사회 관계와 민주화

일반적으로 ‘민주화(democratization)’란 말 그대로 “한 국가의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의미이며, “민주주의의 목표와 이념을 지향하는 정치체제로의 변화과정 그 자체”를 뜻한다(윤진표 1994, 51-3). 흔히 ‘민주화’란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억압적 통제가 완화되고 시민적 권리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자유화(liberalization)’ 개념을 포괄하며, 이와 더불어 “경쟁적 자유·보통선거 등 정부 구성에 필요한 민주적 절차가 회복되고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적 참여와 통제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것(O'Donnell et al. 1986b, 7-8)”을 뜻한다. 그러나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민주화’는 단순한 절차적 차원의 정치적 민주화를 뛰어넘어 이와 같은 정치적 민주화의 실질적인 내용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개혁까지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과거 권위주의체제로부터 파생된 정치적 억압의 해소나 경쟁

적 선거정치의 실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시민적 권리의 회복과 그것이 실제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재구성을 의미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한편 권위주의체제가 붕괴되고 민주주의체제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민주화는 예정된 목표와 과정대로 단일한 유형을 형성하며 전개되기보다는 그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다양한 정치행위자들의 역학관계에 따라 보다 복잡하고 유동적인 정치과정을 거치게 된다(Sørensen 1993, 40). 특히 민주화과정에서는 권위주의체제를 통하여 독점적 정치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집권세력으로서의 국가와 정치적 변혁과 민주주의를 추진하려는 시민세력들 사이에 밀고 밀리는 역동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들 사이의 역학관계는 민주화의 방향과 그 진행경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민주화운동의 성공으로 새로운 정부 및 국가를 재구성하고 사회적 통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국가와 시민사회는 또 다른 갈등적 경쟁관계를 유발함으로써 민주주의체제의 수립과 공고화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된다(Migdal 1988, 22).

이에 따라 한 국가의 민주화과정이 진행되는 경로를 고찰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할 대상은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이다. 국가와 시민사회는 정치적 장(場)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두 분야로서 민주화과정에서도 각각의 목표를 지향하면서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작용과 반작용을 계속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는 “정치과정에서 공적 부문을 관장하는 항구적인 관료조직이자 제도화된 법·질서인 구조적인 측면과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하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능력과 자율성을 갖는 행위자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정부 이상의 그 무엇으로서 행정과 관료, 통치체제 등으로 이루어지는 집권세력 그 자체(Diamond 1994, 5-11; Rockman 1990, 28-32)”를 의미한다. 반면 ‘시민사회’는 “다양한 사회운동과 모든 계층으로부터 나온 시민조직들이 그들의 이익을 내세우며 자신들을 표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영역(Stepan 1987, 3-6)”을 의

미하며,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 바깥에서 개인과 집단들 사이에 사적 혹은 자발적 협정과 계약을 통해 조직되는 생활영역(Held 1989, 181)”을 뜻한다.

흔히 권위주의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에 있어서 집권 세력으로서의 국가는 자신의 독점적 정치권력과 통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성향을 나타내게 되며, 시민사회는 국가의 억압적 통제에 대항하여 시민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민주화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따라서 권위주의적 성향을 지닌 국가와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사이에는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긴장관계의 폭발은 권위주의적 국가의 반대세력으로 성장한 시민사회의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권위주의적 국가와 집권세력에 대항하는 시민사회의 민주화운동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소외나 억압, 부패 등에 자극을 받아 규합될 수도 있으며,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경제성장의 결과로 형성된 사회집단이나 계급들이 새로운 시민운동 세력으로 성장하여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Sundhaussen 1994, 548). 민주화운동을 추진하는 사회집단과 시민세력들이 폭넓게 조직화될수록 국가의 독점적 정치권력에 저항하는 민주화의 요구는 보다 강력해질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시민운동이 보다 활성화되고 집권세력을 대신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대체세력이 가시화된다면 민주화과정은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촉진될 수 있다.

권위주의체제에 대항하여 정치변동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민주화운동을 연구한 기존 논의들은 민주화과정이 성공적으로 전개됨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요인을 강조하고 있는데, 1) 정치적 기회구조와 운동의 억제요인, 2) 저항을 촉발시킬 수 있는 공식·비공식 조직의 유형, 그리고 3) 기회와 행동 사이를 매개하여 주는 집합과정(collective process)이 그것이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여 정치적 기회(political opportunity)와 동원구조(mobilizing structure), 그리고 운동의 형성과정(frame process)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McAdam et,

al. 1996, 2). 타로우(Tarrow 1994)는 국가-시민사회 관계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일반 시민들이 집단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고무되거나 방해받는 정치적 환경을 ‘정치적 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개념을 통하여 설명한 바 있는데,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시민사회가 동원화됨에 있어서 정치참여로의 접근에 대한 개방성, 지배 배열의 이동성(혹은 불안정성), 영향력 있는 동맹의 유용성, 그리고 정치엘리트들 사이의 틈새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권위주의체제의 독점적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지배세력으로서의 국가와 시민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반대세력으로서의 시민사회 사이에서 정치적 기회구조가 형성되어 민주화과정이 촉발되고 성공하기까지 요구되는 세 가지 요인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민주화과정이 촉발되기 위한 정치적 기회구조의 형성과 이에 따른 민주화의 성패 여부는 ① 지배세력으로서의 국가와 반대세력으로서의 시민사회가 갖는 ‘정통성(legitimacy)’ 혹은 ‘정당성(rightfulness)’, ② 민주화과정을 둘러싼 국가와 시민사회 각각의 역량의 결집을 의미하는 ‘연대성(solidarity)’, 그리고 ③ 과거 민주주의 경험의 축적을 의미하는 ‘역사성(historical experience)’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우선 ‘정통성’ 혹은 ‘정당성’은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수용도 및 저항의 타당성을 의미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정권의 권력 장악 및 정치체제에 대하여 시민사회가 이것을 받아들일지나 저항하느냐에 대한 기준을 제공해 준다(진영재 외 2002, 254). 정치권력을 지속시키기 위한 국가의 정통성 혹은 국가에 저항하는 시민운동의 정당성 문제는 권위주의체제의 유지 혹은 붕괴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집권세력으로서의 국가가 권위주의체제를 계속 유지하거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대세력으로서의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민주화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그 존립 근거를 마련하여 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가경제를 관리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혹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추진된 각종 경제발전 전략들이 실패하였을 경우 이에 기반을 둔 권위주의체제는 즉각적으로 정통성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Clavert 1985,

40). 반대로 이들이 추진한 경제정책에 의하여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면 정통성의 기반을 경제발전에 둔 권위주의 정권의 집권은 장기화될 수 있지만, 경제적 성장이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성장을 촉진시키거나 또 다른 사회적 불안 요인과 결합될 경우 이것은 궁극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의 정통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반대세력으로서의 시민사회가 추진하는 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민주화과정이 전개됨에 있어서 '연대성'은 국가와 시민사회가 각각 형성하는 역량의 결집을 의미하며, 양대 세력들이 민주화과정을 놓고 밀고 당기는 힘의 크기를 뜻한다. 다양한 사회부문들 사이의 연대감 형성은 시민사회의 성공적인 민주화 투쟁을 위한 필수적인 요인이 된다. 권위주의체제에서 시민사회가 추진하는 민주화운동이 성공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운동부문들 사이의 운동목표 및 전략에 대한 합의와 연합전선의 형성,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세력의 제시가 필수적이다(윤성이 1998, 111). 반대로 집권세력이나 지배연합으로서의 국가가 분열되거나 그 동맹관계가 느슨해질 경우 국가는 시민사회의 민주화 요구를 억압할 수 있는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O'Donnell et. al, 1986a, 19). 예를 들어 군사정권에 의해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내에서 군부내 파벌주의나 집권동맹의 해체는 독점적 권력장악을 위한 정치적·이념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한 강력한 저항세력의 등장이 정치적 위기를 초래함으로써 집권세력 내부의 분열을 조장할 수도 있다(서경교 1993, 295).

한편 '역사성'은 국가-시민사회 관계가 내재적으로 함유하게 되는 민주주의 경험의 축적을 의미한다. 만일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에서 과거 민주주의체제를 운영한 바 있거나 민주화과정의 성공 혹은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면, 이러한 과거의 역사적 경험들은 민주화과정이 보다 성공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운동의 방향과 전략을 설정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민주주의란 어느 한 순간에

단기적으로 완성되는 정태적인 산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보완되어지는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과거 시기의 민주화운동이나 민주주의체제의 경험은 권위주의체제에 저항하는 민주화과정이 촉발되고 진행됨에 있어서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II. 태국의 국가-시민사회 관계와 민주화과정의 전개

1. 1973년 민주화과정의 전개와 국가-시민사회 관계

1973년 태국에서 발생한 제1차 민주화운동이 권위주의체제의 붕괴와 군부정권의 교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도 이후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국가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체제의 안착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까닭은 민주화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가 민주화를 위한 충분한 제반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실상 태국의 1973년 민주화과정은 민주화 투쟁의 핵심세력이었던 학생세력들마저도 미처 예기치 못하였던 군부정권의 급작스러운 종말을 초래하였으나, 이후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세력들 사이의 역량을 결집시키지 못하고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발안을 초래함으로써 결국 1976년 또 다른 군사쿠데타가 발생하는 명분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우선 정통성 및 정당성 차원에서 1973년 발생한 태국의 제1차 민주화과정은 집권세력으로서 국가가 지니는 정통성이 약화되고, 이에 대하여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민주화운동이 정당성을 확장함으로써 촉발되었다. 1947년 민간정부인 프리디(Pridi Phanomyong) 정권을 제거하기 위하여 발생한 군사쿠데타 이래 수차례에 걸쳐 발생한 쿠데타에도 불구하고 개발독재를 통해 강력한 권위주의체제를 형성하였던 짜릿(Sarit Thanarat)이 사망하자, 집권 군부세력이었던 타넘(Thanom)과 프라팻(Praphat) 등은 서로 연대하여 1963년부터 보다 강

력한 관료지배체제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타נם과 뿌라팻에 의해 수행된 군부세력의 권위주의 정권은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1971년 11월 발생한 친위쿠데타를 통하여 1968년 헌법을 폐지하고 모든 정치활동의 중단을 선포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특히 타נם과 뿌라팻 정권은 1972년 신헌법 제정을 통하여 전체 국회의원을 임명직으로 대체하고 그 중 3분의 2를 군과 경찰에서 선임하는 등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를 획책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그 동안 누적되었던 국민들의 불만과 정치적 자유에 대한 열망이 폭발함으로써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전개되는 등 그 정치적 정통성이 위협받게 되었다.

반면 태국의 시민사회는 1970년대부터 눈에 띄는 변화를 맞이하면서 군부의 권위주의체제에 대한 비판과 정치참여 의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1960년대 연평균 8%의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하였던 태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교육의 확대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자각이 폭넓게 확산되었다(윤진표 1996, 31). 이에 따라 타נם과 뿌라팻 등 군부 집권세력의 억압적 권위주의체제 획책에 저항하여 1973년 5월부터 학생과 지식인세력들을 중심으로 민주헌법과 자유·경제선거를 요구하는 민주화운동이 연일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3년 10월 13일 반정부 유인물을 배포하던 학생들과 반체제 인사들이 정부에 의해 체포되자 시민사회세력의 민주화 투쟁은 방콕 시내에 25만 명 이상이 운집하는 대규모 시위로 확산되었으며, 시위진압을 위한 군과 경찰의 발포가 이루어지자 민주화 시위는 폭동 수준으로 악화되었다(김홍구 1996, 31). 시위진압과정에서 발생한 군정과 시위대의 유혈 충돌은 양대 세력의 극한적인 대립을 초래하였으며, 정부의 폭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세력의 정당성은 점차 그 명분과 지지세력을 폭넓게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시위 사태와 유혈충돌이 건잡을 수 없게 확산되자 푸미폰(Bhumibol Adulyadej) 국왕이 중재에 나서게 되었으며, 결국 타נם과 뿌라팻 등 군부 집권세력이 정치적 망명길에 오

르게 됨으로써 태국은 급작스러운 민주화과정을 맞이하게 되었다.

연대성 차원에서 1973년 제1차 민주화과정은 집권세력이었던 국가의 분열과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연대와 결집이 민주화과정을 촉진시켰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 세력 또한 학생과 지식인, 그리고 일부 노동자들이 민주화과정에 참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민들의 단합된 역량의 결집을 유도하지 못한 채 좌·우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분열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민주화과정을 성공시키지 못한 채 단기적인 정치변혁으로 결말을 맺게 되었다. 우선 집권세력의 분열은 타넘과 뿌라팻 등 군부세력의 집권연대에도 불구하고 끋릿(Krit Sivara) 장군 등 일부 군부세력이 시위진압을 거부함으로써 내부적 분열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이를 통하여 집권세력 내부의 정치적 연대성은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는 집권세력의 퇴진과 체제 붕괴를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연대성은 주로 학생과 지식인세력들을 통하여 형성되었다. 1963년부터 전개된 학자와 지식인들의 『사회과학평론(Social Science Review)』활동과 1969년 재건된 '태국전국대학생센터(NSCT: National Student's Center of Thailand)'의 정치계몽운동은 1972년부터 전개된 민주화운동의 중심적인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그밖에 '태국농민연합회(FFT: Farmer Federation of Thailand)'와 '전국노동조합(NLU: National Labour Union)' 등 일부 사회세력들이 연대를 형성하여 민주화운동을 활성화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민주화 투쟁은 전체 국민과 사회집단들의 참여와 연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학생과 지식인세력을 중심으로 추진된 한계적 민주화운동이었으며, 시민세력은 정권 교체와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집권세력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세력을 준비하지 못한 채 좌·우 대립을 지속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새롭게 출범한 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데 실패하였다.²⁾

역사성의 차원에서 1973년 발생한 제1차 민주화과정 이전에 태국의 민주주의 경험은 매우 일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록 1944년부터 1947년까지 관료 출신인 빠리디를 중심으로 민간정부를 수립하였던 시기가 있었으나 이 기간동안 진정한 민주정치의 체험은 불가능하였고, 1940년 피분(Phibun Songkhram) 정권에 의하여 동원된 관제 학생시위나 1952년부터 1957년 사이 탐마삿대학교를 중심으로 전개된 ‘싼티팜 평화운동’ 등도 주로 소규모 학생들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단기적인 정치운동에 불과하여 민주화를 추진하고 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충분한 경험이 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화세력으로서의 시민세력은 급작스럽게 전개된 군부정권의 퇴진과 정치체제의 공백에 대비하여 새로운 정부 구성 및 국가 수립을 위한 대체세력을 준비하지 못한 채 좌-우 세력으로 분열되어 갈등과 대립을 초래함으로써 민주화의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1973년 발생한 태국의 제1차 민주화과정은 집권세력으로서의 국가가 정통성을 상실하고 연대성이 약화되는 가운데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세력의 정당성이 강화됨으로써 민주화를 위한 정치적 기회구조를 형성하였으나, 시민사회 자체의 포괄적인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한 연대성 부족과 민주주의의 역사적 경험 부족으로 민주화과정을 완성하지 못한 채 또 다른 군사쿠데타에 의하여 민주화의 좌절을 경험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세력은 각 부문별 세력과 좌-우 세력들 사이의 연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극한적 대립과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안정적인 민주주의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대체세력을 제시하지 못한 채 파행적인 정국 운영을 지속함으로써 결국 1976년 10월 이를 빌미로 한 또 다른 군사쿠데타를 맞이하게 되었다.

2) 1976년 10월 탐마삿대학교(Thammasart University)에서 발생한 좌-우 세력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은 군부의 유혈진압과 군사쿠데타의 빌미를 제공하였다(김홍구 1996, 33).

2. 1992년 민주화과정의 전개와 국가-시민사회 관계

1992년 발생한 태국의 제2차 민주화과정이 1991년 발생한 쑤찐다 장군의 군사쿠데타와 군부세력의 집권 야욕을 저지하고 민주주의체제의 수립에 성공한 이유는 민주화과정에서 전개된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가 1973년의 제1차 민주화 시기보다 그 제반 여건 면에서 성숙하였기 때문이다. 사실상 태국의 제2차 민주화과정은 이미 1980년대부터 브렘 정권에 의하여 추진된 준민주주의체제의 경험과 정치·경제적 안정으로 인하여 군사쿠데타를 통하여 집권을 획책하던 군부세력의 정치적 통통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가운데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단합된 민주화운동이 커다란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민주화의 성공이라는 결실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우선 정통성과 정당성 차원에서 쑤찐다 장군을 중심으로 한 군부세력은 1988년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출범된 찻차이(Chatchai Choonhavan) 정부의 금권정치와 부정·부패 문제를 빌미삼아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 장악을 시도하였으나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유도하였다. 일단 쿠데타에 성공한 군부세력은 ‘국가평화유지위원회(NPKC: National Peace Keeping Council)’를 구성하고 헌법의 효력 정지 및 의회 해산을 명령하였으며, 군부의 정치개입을 우려하는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1992년 4월 이전까지 의회선거를 실시한 이후 군부는 다시 군으로 복귀할 것을 천명하는 등 나름대로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3월 실시된 의회선거에서 정의단결당(Samakhitham Party: Justice Cooperation Party)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구성하여 선거에 참여한 군부세력은 친군부 성향의 태국국가당(Chart Thai Party)과 사회행동당(Social Action Party) 등을 동맹 관계로 끌어들여 선거에 승리하였으나, 선거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부정선거와 금권선거 등으로 인하여 일반 시민과 야당세력의 강력한 비난을 받게 되었다. 특히 군부세력은 정의단결당 총재인 나롱(Narong

Wongwan)을 내각의 총리로 천거하였으나 그의 과거 행적이 문제되어 일반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후 다시 쑤찐다 자신이 군에서 예편하여 총리직을 맡겠다고 선언하였으나 군부의 집권 야욕을 비난하는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점차 집권을 위한 정통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반면 쑤찐다와 군부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 및 시민사회 세력의 민주화 투쟁은 과거 어떤 시기보다도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이미 1980년대 준민주주의 시기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각종 시민단체들은 국가의 과도한 권력 집중과 쑤찐다의 총리직 수행을 반대하였으며, 보다 공정한 사회질서와 정부 개방, 인권적 정의(正義), 그리고 국가의 권력 남용에 대한 시민적 통제 등을 주장하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여 왔다(Phongpaichit et al, 1997, 34). 이에 따라 쑤찐다의 총리직 수행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태국의 제2차 민주화과정은 점차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었으며, 쑤찐다의 퇴진과 군대의 복귀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벌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저항과 민주화 투쟁의 핵심은 1980년대 초반부터 민주주의체제의 수립을 주장해 온 활동가집단인 학생과 지식인세력들이 중심이 되었으나(Phongpaichit et al, 1995, 358), 투쟁의 양상이 점차 격렬해지면서 태국의 중산층이 민주화운동에 동참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민주화운동은 보다 확고한 정당성을 지니게 되었다. 결국 태국 국민들은 군사쿠데타를 통한 정권 탈취가 구시대의 유물이며 군부세력의 집권이 현재 태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부의 정치개입은 그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서경교 1994, 142; 이면우 1998, 455).

연대성의 차원에서 집권세력은 그 지배연합에 참여하였던 자본가세력이 점차 이탈해 나감으로써 내부적 분열을 초래하였다. 또한 시민사회세력은 학생과 지식인, 사회운동세력을 중심으로 '대중민주주의운동

(CPD: Campaign for Popular Democracy)'을 결성하고 각종 민주화 세력을 결집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강력한 힘의 결집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화세력은 일반 시민운동세력들 뿐만 아니라 반군부적 성향을 지닌 야당세력들 중 민주당(Democrats)과 신열망당(New Aspiration Party) 등이 성명을 발표하고 수진다의 퇴진을 요구하였으며, 찰롱(Chamlong Srimuang)이 이끄는 팔랑탐당(Palang Dharma Party)의 경우에는 초당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에 동참하였다(Jumbala et. al 1997, 206). 1992년 5월 14일에 이르러 시민연대는 다양한 계층과 정파를 포괄하는 공동투쟁조직인 '민주주의연합'(CD: Coalition for Democracy)을 결성하여 군부세력에 저항하였으며, 5월 17일에는 50만 명에 이르는 일반 시민들이 방콕 거리에서 군부 퇴진과 민주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전개하였다(박은홍 1994, 180). 사태가 급박한 상황으로 전개되자 군부세력은 무력진압을 통하여 유혈 사태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5월 21일 푸미폰 국왕은 군부세력의 수장인 수진다와 민주화세력의 대표인 찰롱을 왕궁으로 불러들여 문제 해결을 하명하게 되었다.³⁾ 결국 5월 24일 수진다와 일부 군부세력은 더 이상 국민들의 반발을 통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망명의 길을 택하게 되었으며, 태국의 1992년 민주화 투쟁은 1992년 9월 재선거를 통하여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이라는 성공적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역사성의 차원에서 1973년 발생한 제1차 민주화운동의 진행경과와 1980년대 추진된 준민주주의체제의 경험은 1992년 발생한 제2차 민주화운동이 성공하여 태국정치에 있어서 다시 민주주의체제가 수립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비록 1973년부터 1976년 사이 진행된 태국의 제1차 민주화과정은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채 짧고 혼란스러운 과정이었으나, 태국 국민들이 처음으로 민주주의를 현실 그대로 경험할

3) 이미 1992년 5월 7일에는 '민주주의수호위원회,' 15개 대학기관의 '연구자모임,' '시민사회운동협의회' 등 300명으로 구성된 민주화세력의 대표자들이 왕궁을 방문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국왕의 개입을 직접적으로 호소한 바 있다(Matichon, 1992.5.8).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윤진표 1994, 31). 또한 1980년 총리직을 계승한 쁘렘 장군은 그 자신이 군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군 출신 총리들과 달리 민간인들에게도 개방된 정치를 추구함으로써 태국 민주주의의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쁘렘 정권은 이미 1988년 의회선거를 통하여 정당 출신의 정치인인 찻차이에게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한 바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쿠데타가 아닌 정상적인 선거절차를 통해서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결과적으로 1992년 발생한 태국의 제2차 민주화과정은 집권세력으로서의 국가가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시민세력의 민주화운동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각종 시민세력의 연대를 통하여 민주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역량의 결집을 나타냄으로써 민주화에 성공하게 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역사성의 차원에서도 태국은 이미 제1차 민주화과정의 실패와 1980년대 준민주주의체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정치的重要性和 그 실현방법을 직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민주화의 성공을 유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IV. 태국의 1973년과 1992년 민주화과정 비교

일반적으로 권위주의체제가 형성된 제3세계 국가들에 있어서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갈등과 대립관계는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정치운동의 양식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태국에 있어서도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긴장과 갈등관계는 군부 집권세력으로서의 국가가 수행하는 억압적 정치구조에 저항하는 시민사회의 민주화운동으로 표출되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국에서 발생한 1973년의 제1차 민주화과정과 1992년의 제2차 민주화과정은 각각 실패와 성공이라는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통성과 정당성의 차원에서는 집권세력으로서 국가가 지니는 정통성의 약화와 시민사회가 추진하는 민주화운

동의 정당성 강화라는 일반적인 상황이 민주화과정이 촉발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민주화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양대 세력들 사이에 발생하는 힘의 결집 여부를 의미하는 연대성은 지배세력의 분열과 시민사회 세력의 연대를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민주주의의 경험 축적을 의미하는 역사성 차원에서는 각각의 민주화과정 이전에 축적된 민주정치의 경험이 민주화운동의 진행과 민주정치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표 1〉 태국의 1973년과 1992년 민주화과정의 비교

	1973년 10월 민주화과정	1992년 5월 민주화과정
정통성	국가: 체제·정권 유지의 정통성 약화 시민사회: 민주화 요구의 정당성 강화	국가: 체제·정권 유지의 정통성 약화 시민사회: 민주화 요구의 정당성 강화
연대성	국가: 군부 지배세력의 분열 시민사회: 학생과 지식인세력 연대	국가: 군부 및 지배연합의 분열 시민사회: 전체 민주화세력 연대
역사성	1944~47년 사이 문민정치 경험	1973년 제1차 민주화과정 경험 1980년대 준민주주의체제 경험
결 과	군사쿠데타 재발 → 민주화 실패	민주화 성공 → 민주주의체제 수립

우선 정통성과 정당성 차원에서 1973년 발생한 태국의 제1차 민주화과정은 부패하고 무능한 타넨 정권의 권위주의체제 강화에 맞서 사회적 지지를 받던 학생 및 지식인세력들이 집권을 위한 정통성이 약화된 군부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촉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2년 발생한 제2차 민주화과정 또한 무력으로 정치권력을 찬탈하려는 군부세력이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민주화운동을 추진하는 시민세력은 권위주의적 국가와 정부에 저항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화과정이 촉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태국의 양대 민주화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 나타난 정통성 및 정당성 관계는 결국 잠정적으로 정통성이 약화된 국가에 대하여 시민사회로 하여금 권위주의체제에 도전하여 민주화운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치적 기회구조를 마련해 준 셈이다.

한편 지배세력으로서의 국가와 저항세력으로서의 시민사회 사이에

서 나타나는 힘의 결집은 1973년 제1차 민주화과정과 1992년 제2차 민주화과정에서 다소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제1차 민주화과정에서 군부세력을 주축으로 한 타넘 정권은 이미 군부 내부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여 1971년에 친위쿠데타를 일으킬 만큼 분열이 야기되어 있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민주화세력은 학생과 지식인세력을 주축으로 연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세력 역시 전체 국민적 지지와 모든 계층의 연대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1973년 민주화운동 이후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과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1976년 또 다른 군부쿠데타에 의하여 민주정치의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반면 1992년 발생한 제2차 민주화과정에서 집권세력으로서의 국가는 군부와 자본가집단의 지배연합이 점차 분열되는 양상을 보여 주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시민세력은 학생세력과 각종 사회운동세력, 그리고 반군부적 성향의 야당세력들이 하나로 연대함으로써 민주화 투쟁을 위한 강력한 힘의 결집을 발휘하였다. 이러한 힘의 결집은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민주정부를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태국은 민주주의체제의 수립이라는 새로운 정치사의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다.

민주주의의 경험 축적을 의미하는 역사성은 민주화과정을 활성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우선 태국은 1992년 제2차 민주화과정 이전 1944년부터 1947년 사이 민간인 출신의 뿌리디를 중심으로 미약하나마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운영한 바 있으며, 1973년부터 1976년 사이 제1차 민주화과정에서의 교훈, 그리고 1980년대 싼렘 정권에 의한 준민주주의체제와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이양을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제1차 민주화과정에서는 민주정치와 민주화 투쟁의 경험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여 민주주의체제의 안정적 유지에 실패하였으나, 제2차 민주화과정에서는 보다 성숙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연출하여 혼란을 최소화함으로써 민주주의체제가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제2차 민주화과

정에서는 1973년의 제1차 민주화과정을 경험한 학생세력이 장년층으로 성장하여 시민운동과 민주화 투쟁의 전인차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민주주의 원리와 민주화운동의 역량을 축적한 시민세력이 집권세력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세력으로서의 야당세력 결집을 유도함으로써 민주화과정에 성공할 수 있었다.

결국 태국에서 발생한 1973년의 제1차 민주화과정과 1992년의 제2차 민주화과정의 공통점은 우선 집권세력으로서의 국가가 정통성을 상실한 반면 저항세력으로의 시민사회가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화 투쟁의 정치적 기회구조를 유발하였다는 점이다. 또 다른 공통점은 제1차 민주화과정과 제2차 민주화과정에서 집권세력으로서의 국가는 내부적 분열을 야기하여 시민세력의 도전에 직면하였으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세력은 연대를 형성하여 민주화 투쟁을 위한 힘의 결집을 형성하였다는 점이다. 반면 제1차 민주화과정과 제2차 민주화과정의 차이점은 우선 연대성 차원에서 민주화를 촉구하는 시민세력의 힘의 결집이 다소간 차이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1973년의 제1차 민주화과정은 주로 학생과 지식인세력을 중심으로 민주화 투쟁이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투쟁은 군부정권의 퇴진 이후 좌-우 세력으로 이념적 갈등과 분열을 유발함으로써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였다. 그러나 1992년의 제2차 민주화과정에서는 학생 및 지식인세력과 더불어 다양한 시민운동세력과 중산층, 그리고 반군부 성향의 야당세력들이 하나로 연대하여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쑤찐다 등 군부세력의 퇴진 이후에도 강력한 시민연대와 대체세력이 등장하여 민주주의체제의 수립을 촉진시켰다. 또한 제1차 민주화과정에서는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체제의 경험 부족으로 군부정권의 퇴진 이후 그 대체세력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였으나, 제2차 민주화과정에서는 제1차 민주화과정의 실패를 교훈삼아 정치적인 대체세력을 제시하고 일반 국민들 또한 보다 성숙된 분위기로 정치적 안정을 유도함으로써 민주주의체제가 안정적으로 수립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V. 맺음말

우리가 '민주화' 개념을 하나의 사건이나 단선적인 과정이 아닌 보다 복잡하고 중층적인 정치과정으로 이해한다면, 민주화과정은 그것에 참여하는 정치행위자들의 역학관계에 따라 보다 다양한 역동성을 나타내게 된다. 태국에서 발생한 1973년의 제1차 민주화과정과 1992년의 제2차 민주화과정은 지배세력으로서의 국가와 저항세력으로서의 시민사회가 민주화를 둘러싼 힘의 대결 속에서 정권 교체와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을 유도하려는 복합적인 정치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는 정통성 및 정당성, 연대성, 역사성을 통하여 나타나는 힘의 역학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집권세력으로서의 국가가 권력의 정통성을 상실하고 분열되어 힘의 결집이 약화된 반면 저항세력으로서의 시민사회가 민주화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연대를 형성함으로써 정권 교체와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을 위한 정치적 기회구조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또한 태국의 제2차 민주화과정이 성공하여 민주주의 체제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원인은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크고 작은 민주주의의 경험인 민주화과정의 활성화와 민주주의체제의 안착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선 정통성 및 정당성의 차원에서 권위주의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제3세계 국가의 정통성은 정권 및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반면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민주화 투쟁은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배세력으로서의 국가가 정통성을 상실하고 시민사회의 민주화 투쟁이 정당성을 확장시킨다면,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이라는 민주화과정을 촉발시킬 수 있는 정치적 기회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태국의 두 차례에 걸친 민주화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지배세력으로서의 국가가 정통성을 상실하고 저항세력으로서의 시민사회가 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확대시킴으로써 민

주화과정의 정치적 기회구조가 형성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민주화과정에서 집권세력으로서의 국가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저항 세력으로서의 시민사회는 각각의 내부세력들을 결집하고 연대를 형성함으로써 대결하게 되는데, 집권세력의 분열이 야기되고 민주화세력의 연대가 강화될수록 민주화과정은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민주화운동을 통하여 권위주의체제가 붕괴되고 민주화세력에 의하여 새로운 민주주의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사회의 연대와 역량의 결집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을 축소시키고 민주주의체제를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태국의 양대 민주화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현실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제1차 민주화과정에서 힘의 결집이 미약하고 이념적 대립을 형성하였던 민주화세력은 안정적인 민주주의체제를 정착시키는데 실패하였으며 제2차 민주화과정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역량의 결집과 각종 세력들의 연대가 지속됨으로써 민주정치의 실현에 성공하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사성 차원에서 민주화운동이나 민주주의체제의 경험 축적은 민주화과정 자체가 보다 효과적이며 안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주의 경험이 미약한 국가에서 민주화과정을 이끄는 시민세력들은 그 경험이 일천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을 수행하고 민주주의체제를 수립함에 있어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양산할 수 있다. 반면 민주화 투쟁이나 민주주의체제의 경험을 많이 축적한 국가일수록 시민사회가 추진하는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은 보다 효과적이며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태국의 제1차 민주화과정과 제2차 민주화과정에서도 실증적으로 표출되었는데, 1973년의 제1차 민주화과정이 여러 가지 경험 부족과 사회적 혼란으로 실패한 반면 1992년의 제2차 민주화과정은 민주화를 추진하는 각종 세력들이 집권세력에 대항하는 대체세력을 제시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민주화과정을 유도함으로써 민주주의체제로의 체제전환에 성공한 것이 그것이다.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태국의 제1차 민주화과정과 제2차 민주화과정을 국가-시민사회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정통성 및 정당성, 연대성, 역사성 등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하려는 집권세력으로서의 국가와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저항세력으로서의 시민사회가 어떻게 다양한 측면으로 역학관계를 형성하며 민주화과정의 성패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고찰할 수 있었다. 즉, 태국의 제1차 민주화과정과 제2차 민주화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시민사회 관계는 정통성 및 정당성, 연대성, 역사성 등이 어떻게 조율되고 어떤 조건에 도달해야만 민주화과정이 성공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홍구, 1996, 『태국군과 정치』, 서울: 전예원.
- 박은홍, 1994, “타일랜드 민주화 연구: 1973~1976년과 1992년~현재를 중심으로 한 비교분석,” 『동남아시아연구』 3.
- 서경교, 1993, “군부의 정권퇴진에 관한 비교 연구: 태국, 필리핀, 한국의 경우,” 『한국정치학회보』 27(2-상).
- _____, 1994, “태국 군부의 정치개입 원인에 관한 고찰,” 『동남아시아연구』 3.
- _____, 2000, “민주화 이행의 이론과 실제: 필리핀의 사례,” 『국제지역연구』 4(4).
- 윤성이, 1998,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 권위주의체제 변동: 정치 기회구조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2(4).
- 윤진표, 1994, “태국의 정치변동과 민주화의 과제,” 김성주 외, 『동남아의 정치변동』, 서울: 21세기한국연구재단.
- _____, 1996, “태국의 정치리더십과 민주화,” 김성주 외, 『동남아의 정치리더십』, 서울: 21세기한국연구재단.
- 이면우, 1998, “태국의 정치제도와 민주주의,” 박기덕 편, 『민주주의와 정

- 치제도 : 체제수행능력을 중심으로』, 서울 : 세종연구소.
- 이동운, 2000, “태국과 필리핀 민주화과정의 비교 연구 : 시민사회운동을 중심으로.” 『연세학술논집』 32.
- 진영재 · 이동운, 2002, “정통성 위기의 다차원성과 정치변동 :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사례 비교.” 『국제정치논총』 42(1).
- Matichon, 1992/05/08.
- Calvert, Peter, 1985, “Democratization in Latin America,” *The Third World Quarterly*, 7(1).
- Diamond, Larry, 1994, “Rethinking Civil Society: Toward Democratic Consolidation,” *Journal of Democracy*, 5(3).
- Held, David, 1989, *Political Theory and Modern Stat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Huntington, Samuel P,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Jumbala, Prudhisana and Maneerat Mitprasat, 1997, “Non-Governmental Development Organizations: Empowerment and Environment,” Kevin Hewison (ed.), *Political Change in Thailand*, New York: Routledge.
- Koppel, Bruce M, 1993, “The Prospects for Democratization in Southeast Asia: Local Perspectives and International Roles,”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12(3).
- McAdam, Doug,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1996, “Introduction: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Framing Processes — Toward a Synthetic, Comparative Perspective on Social Movements,” in Doug McAdam,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eds.),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Political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Cultural Framing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gdal, Joel S, 1988, *Strong Societies and Weak States: Society, Revolutions and State Capabilities in the Third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Neher, Clark D, 1994, “Asian Style Democracy,” *Asian Survey*.

34(11).

- _____. 1996. "The Transition to Democracy in Thailand," *Asian Perspective*, 20(2).
- O'Donnell, Guillermo and Philippe C. Schmitter, 1986a,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i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_____. 1986b.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ies," in Guillermo O'Donnell, Phillippe C. Schmitter, and Laurence Whitehead (eds.),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 Rule: Perspects for Democrac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Phongpaichit, Pasuk and Chris Baker, 1995. *Thailand: Economy and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7. "Power in Transition: Thailand in 1990s," in Kevin Hewison (ed.), *Political Change in Thailand*, New York: Routledge.
- Pye, Lucian W. 1965. "Introduction: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Lucian W. Pye and Sidney Verba (eds.),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ckman, Bert. 1990. "Minding the State or A State of Mind?: Issues in the Comparative Conceptualization of the Stat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3(1).
- Rustow, Dankwart. 1970. "Transition to Democracy," *Comparative Politics*, 2(3).
- Samudananija, Chai-anan. 1982. *The Thai Young Turk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Seligson, Mitchell A. 1987. "Democratization in Latin America: The Current Cycle," in James M. Malloy and Mitchell A. Seligson (eds.), *Authoritarians and Democrats*, London: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Sørensen, Georg. 1993.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Processes and Prospects in a Changing World*, Boulder: Westview Press.

- Stepan, Alfred. 1987. *Rethinking Military Politics: Brasil and the Southern Con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undhaussen, Ulf. 1994. "Military Withdrawal From Government Responsibility." *Armed Forces and Society*, 10(4).
- Tarrow, Sidney. 1994. *Power in Movement: Social Movements, Collective Action an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